

관광 명소 곁들인 물건항

인력수급 석산확보 극복

지역발전 핵심으로 기대

이 호 목 <영생건설(주) 물건항 현장소장>



경 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중심지로서 해안선의 길이가 약2km에 이르며 주로 자갈(몽돌)로 형성되어 있고, 천연 기념물 제 150호로 지정된 물건 방조 어부림이 울창하게 어루러져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아 휴가철에는 인근 남해 금산 및 상주 해수욕장과 더불어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경치에 둘러 싸인 본항은 수산청에서 1985년 12월 제1종어항으로 지정하여 1987년 1차공사에 착수, 현재 7차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다른 어항에 비하면 개발속도가 무척 빠른 셈이다.

이는 이 지역 수산업의 비중, 어촌의 규모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물건 마을은 250여 가구에 1,000여명의 인구를 거느리고 있는 지역 내 최대의 부락일 뿐만아니라 이 가운데 절반이상이 겸업이든 전업이든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또한 어선 세력도 150여 척이나 돼 수산업이 이 지역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주로 어획되는 어종은 멸치 삼치 장어등 연간 1,050톤에 23억8,000만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으니 만만한 수입원이 아니다.

물건항 개발이 특별히 큰 의미를 지니게 된 이유는 수산청 제3종어항인 신수항 및 항만청의 삼천포항, 여수항과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남쪽으로는 수산청 제3종어항인 미조항이 자리잡고 있다.

역사가 오래이면서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미조항과 더불어 신수항이 12.5km, 삼천포항은 16km, 여수항이 32km에 위치한 물건항은 개발하기에 따라서는 수산업의 중심지역인 이곳과 연계해 하나의 대단위 수산업 어항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위치적 장점을 갖고 있다.

인근 어항과 연계 대단위 단지 조성

지금까지 물건항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음으로써 남해 전체의 수산업의 경제가 미조항에 의존해야만 되는 곤란을 겪어 지역발전에도 크게 장애가 되었다. 그러나 물건항이 본격 개발됨으로써 남해 전체의 경제도 크게 달라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미조항과 물건항을 양대 축으로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물건항 개발 계획을 잠시 살펴보면 북방파제 450m, 남방파제 320m, 물양장 330m, 호안 105m, 선양장 30m, 준설 6,000㎡으로 '93년 올해까지 총공정은 북방파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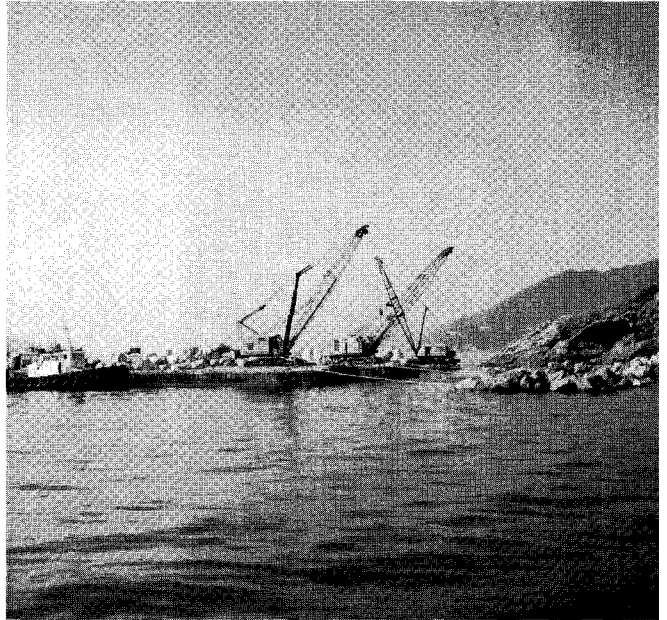
450m, 남방파제 92m를 시공하게 되어 전체 공사 규모의 약 80%에 이르게 된다.

현재 이런 추세로 개발이 되면 96~97년쯤 물건항의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된다면 남해 지역내

어업의 근거지로서 훌륭한 접안 시설과 정온수역이 확보되기 때문에 태풍등 유사사건 인근해역에서 조업하던 외래 어선들까지 대피항으로 이용하고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수적인 효과로 연안 어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출어를 위한 경비 절약을 할 수 있으며 어획물위판, 수산물 제고등으로 어민소득이 증대되어 지역사회발전에 결정적인 핵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종합해 볼 때 결론은 하루 빨리 물건항이 완공되어야겠다는 것이다. 이



렇게 절실한 필요성과 현실사이에에는 크나큰 괴리가 있어 물건항 개발이 앞으로 그리 순탄치만은 않으리라 생각한다.

첫째로 석산 개발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어항공사 현장이면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겪는 일이겠지만 특히, 물건항은 석산이 우여골절 끝에 세번에 걸쳐 변경되었고 언론사의 성토대상도 되었다. 이것으로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은 생각보다 훨씬 심했다.

물건항을 처음 개발할 당시 시공현장 내의 북방파제 시점 부인 당기산을 석산으로 개발 사용했으나 마을주민들의 석산개발 반대라는 민원야기로 1990년 중도에 폐지해야만

했다.

어항공사가 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개발 사업임에 어항개발은 환영하나, 마을의 상징적인 당기산을 훼손시켜서는 마을에 큰 재앙이 일고 또한 후손에게 얼굴을 들 수 없게 될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한편 자연환경보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마을주민들의 태도와 집단행동은 이해가 가나 제대로 개발도 하지 못한 채 상투성으로 흉하게 되어버린 당기산을 바라 볼 때마다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올 여름 태풍때도 현장에서 밤 새워

그후 창선면 진동리에 허가를 득하여 개발을 하던중 이번에는 석산주변 양식장과 정치망 어장주들이 석산 개발반대민원을 계속 야기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토석 채취장 폭파음에 의한 수산업 피해조사를 의뢰, 피해여부와 피해정도를 측정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던 중 어선을 이용한 주민들의 해상무력시위등 문제를 크게 발전시켜 결국에는 또다시 석산을 폐쇄하게 되었다.

지금은 남해군 창선면 가인리에 필요한 량의 석재를 수급하고 있지만 운반거리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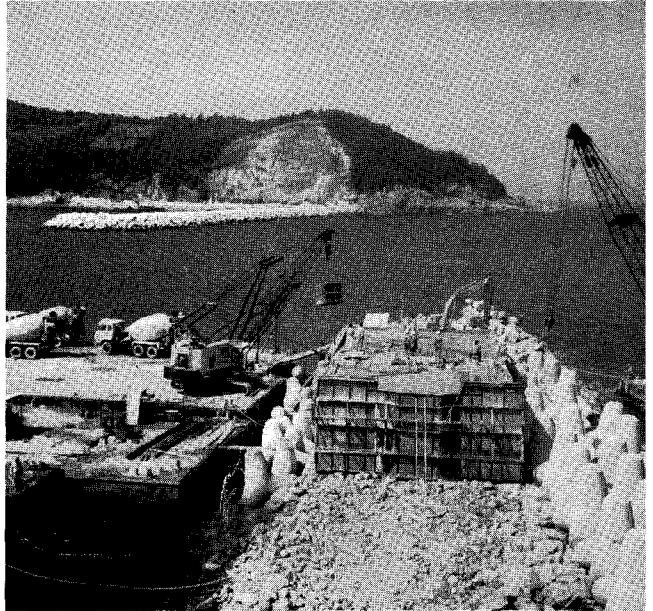
려 14km나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공사비도 크게 오르게 되었고 무엇보다 공기를 맞추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이 큰 문제로 남아있다.

앞으로 물건항이 완공되어 재구실을 할 수 있

으려면 많은 량의 사석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의 석산량으로 모자랄 것 같아 매우 난감하기 그지없다.

둘째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어촌이 점차 고령화되고 이어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현장에서 일 할만한 젊은이를 구하기가 이만저만 어렵지 않다.

실사 현장에서 어렵게 인부를 구해왔다손 치더라도 최근 우리사회의 크나큰 병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된, 힘들고 어려운 일 기피현상 때문에 제대로 일을 시키기가 어렵고 뿐만 아니라 비싼노임과 경비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삼천포까지 나가 인부를 데려오긴 했지만 사소한 일로 그만



두곤해 숙련된 기술공의 절대부족으로 공사의 승패를 가늠하는 품질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시공기술자들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결국 공사비 증대와 공기지연, 부실시공의 요인으로 등장, 어항공사가 이제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가는 느낌마저 든다.

셋째는 주요 공정이 태풍기와 겹친다는 점이다.

대체로 3월경 공사가 착공되어 사석 투하 및 고르기 작업을 마치고 상치콘크리트 타설 및 T.T.P 거치를 할때쯤 되면 태풍을 걱정하게 된다.

지형적인 조건이 태풍의 직접 영향을 받는 항으로 해마다 치러야 하는 일이긴 하지

만 최근 태평양 해수온도의
 이상 상승 현상과 지구촌 기
 상이변으로 올해는 유독 일찍
 태풍이 발생하여 항만 종사자
 들에게 긴장을 고조시켰다.
 특히, 올여름 A급으로 불리우
 는 제7호 태풍 '로빈'의 발생
 으로 시공중이던 남방파제 취
 약부분의 긴급한 보강 후 신
 속하게 장비를 대피시키고 밤
 을 꼬박 새우며 현장을 지켰
 던일. 다행히 큰 피해없이 비
 쳐가고 새벽에 현장상태를 들
 러보며 어제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긴
 장과 수면 부족으로 몸은 무
 겁지만 가슴벅찬 보람과 긍지
 를 느껴던 일 등...

금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
 는 이 모든 것은 사명감이 없
 었다면 결코 이루어 내기가
 어려웠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태풍기에 주요공정이
 겹치지 않도록 공사 착공시기
 를 고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
 외에도 올 공사를 시공하면서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 추진과
 정에서도 어려움이 적지 않았
 다. 남방파제 상부 92m, T.
 T.P 1,450개 콘크리트량만으
 로도 16,000m³이나 되니 결코
 만만한 물량이 아닌 데다 배치
 플랜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한
 가동의 어려움이 겹쳐 이루 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천, 창원
 등지를 뛰어
 다니며 전문
 기술자를 데
 려와 고쳐 가
 면서 가동해
 이제 콘크리
 트 생산은 얼
 마남겨 두고
 있지 않다.

얼마나 자
 주 쫓아 다녔
 던지 나 자신
 도 모르게 반
 전문가가 되
 어있는 실정이다. 현장사무실
 과 작업현장이 멀리 떨어져
 배를 타고 다녀야만 하는 특
 수한 여건 때문에 식사를 나
 르는 일, 작업후 잠자리등 작
 은 부분 하나 하나부터 애로
 점이 있어 작업능률 향상에
 큰 차질을 빚었다.

새로운 각오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처음
 계획했던 것 보다 빨리 올 공
 사의 준공을 생각하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
 한 결과이겠지만 특히, 수산
 청 노태영 감독관의 따뜻한
 배려와 호된 질책등 지도편달
 이 없었으면 가히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끝으로, 우리지역내 창선대
 교의 붕괴사고등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건설현장 대형
 사고를 보면서 부실시공이 주
 요원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
 다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던
 건설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낀다.

이제라도 우리 건설인 특히,
 항만기술자 모두는 견실시공
 과 품질확보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겠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건
 설공사에 대한 선입감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까지 물
 건항 공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과 이 글을 끝까
 지 읽어주신 어항인 모두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린다.㉨